

개 회 사

'22. 7. 14.(목) 16:00

금융투자협회 3층(볼스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본시장연구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17일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일반주주 보호방안’ 세미나에 이어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한 두 번째 정책세미나로,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화두로 등장한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의 고민을 여러 전문가, 이해관계자 분들과 나누고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일반주주 보호 문제와 증시 저평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는

사실, 이제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된 이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결되었는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도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단기간 내 상장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회사의 주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①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②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의 PER이나 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 지난 10년간('10~'21년) PER : 코스피 15.8배 / 선진국 평균 21.5배, 신흥국 평균 19.6배

Ⅲ. 새 정부의 정책방향

새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문제는
투자자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방안을 공시토록 하여,

일반주주 분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하여 상장할 때에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하여 미흡할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추가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고려사항] 보호대상 모회사 주주 확정문제,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여부, 자회사 상장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 (☞ 세미나 발제자료 참고)

IV. 맺음말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긴축 모드로 전환되면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최소한의 비용과 충격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우리 증시가 더 빠르고 큰 폭으로 반등하고,

대내외 위기 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요 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본시장에 고착화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속히 제도화하는 한편,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더욱 폭넓은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 내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계속해서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